

‘업계 스스로 환경 대응책 마련해야’

국내업체에 일본 포장전문가 파견 기술지도 계획

지난 3월 24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에서 일본포장기술협회 사사끼 상무이사와 후레야 국제부장의 방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KIDP의 ‘GR에 대비한 포장의 역할과 대책’이라는 워크샵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사사끼씨는 한일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KIDP와 몇 가지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한국방문에 KIDP와 어떤 업무협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KIDP와 협의를 통해 2~3가지 사업을 결정지를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연수생을 일본에서 교육시키는 것과 일본 포장전문가를 한국업체에 파견해 기술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나는 한국포장전문가들이 5월 16일부터 열리는 도쿄엑스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도쿄엑스는 국제 포장 전시회로써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JPI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도 포장협회가 발족되어 있지만 태동한지 불과 2년정도에 불과합니다. JPI가 설립된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JPI는 협회 내에 포장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폐기물 처리나 포장문제, 리사이클 문제 등 후처리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산성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자, JPI가 주축이 되어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현재는 적정포장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폐기물처리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데 JPI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장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과 후처리에 대한 연구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JPI를 소개한다면?

“15년전 부터 20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00개 회원사가 있으며 포장자재 및 기계업체와 제품을 포장하는 최종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예산은 12억엔인데 회원들로부터 회비 2억엔과 연구사업비, 포장관리사 교육 수입 등 10억엔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단체 중에서는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쿄에 본부를 두고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나고야, 혼다이에 각 지부를 두어 회원들과 연결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회원사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일본 포장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포장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취급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일본의 포장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대책이 전개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캔을 재생하고 복합포장재질로 된 것을 단일 재질화하고, 신문과 잡지 등을 회수하는 등 리사이클 관련사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이는 환경



◀ 사사키 상무이사는 근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한 관심에 따라 JPI도 환경대응책과 적정 포장에 대한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에 친화적이고 플라스틱은 환경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필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광분해, 수분해, 생분해되는 필름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 만든 리사이클 관련 법 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독일에도 포장폐기물법이 있고 EC국가들간에도 포장폐기물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 지느냐가 문제이지만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리사이클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종이 재생지 이용률 55%, 스티캔 55%(94년) 등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스티캔은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론에서 지적하기 전에 업체들이 나서서 기준을 만들어 점차 지켜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 포장산업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포장업체의 전문지들이 그 분야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일본에는 여러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포장관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학에 포장학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학과 설립 계획은 없는지?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포장학과가 많은 실습 기자재를 필요로 하므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장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한 대학에서 포장의 전 분야를 교육할 수 없어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의 경우도 수송포장 부분만을 주로 하고 있고 럽거스대학도 식품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의 포장학회는 3년전에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사사키씨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소비자의 인식이 플라스틱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포장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포장업체 스스로가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